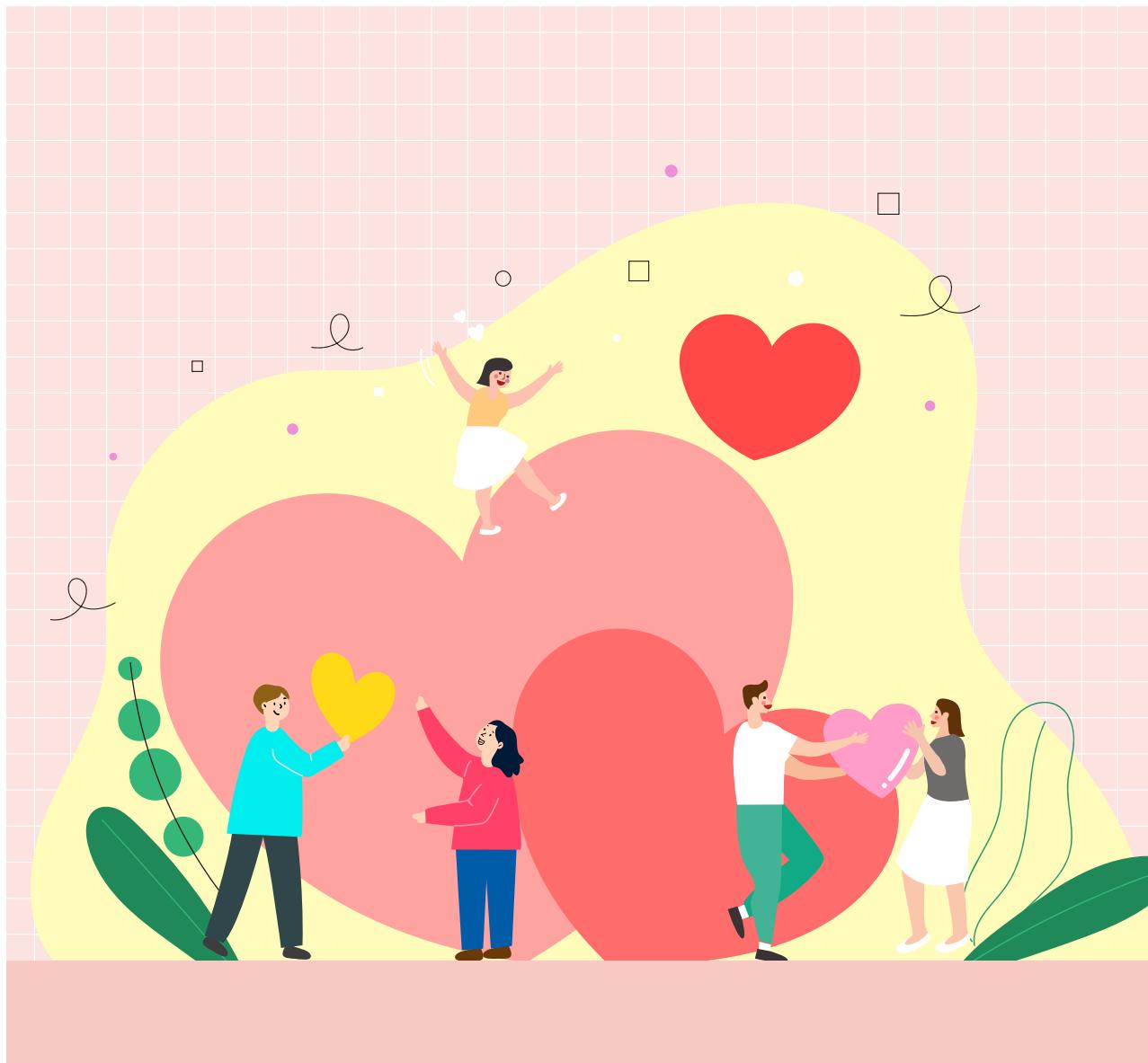


참사람 36.5°C

2022년 8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2년 8월 5일 금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소식지
chamsaram.org



Cover Story

코로나 팬데믹의 재확산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처럼 안부를 묻고 애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스キン십입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료되어 가족, 친구와 마음껏 함께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꾸어봅니다.



04

참사람을 말하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며 책 읽기

글 _ 윤성근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대표/에세이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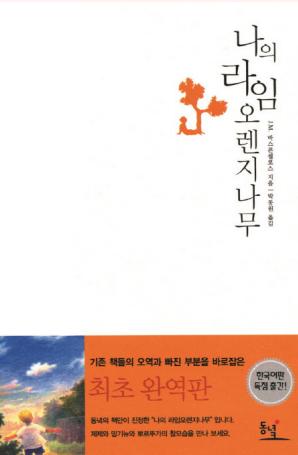


06

내가 만난 참사람

놀라운 탁구실력을 자랑하던 장애인 아저씨의 비밀

글 _ 참사람 독자 권우혁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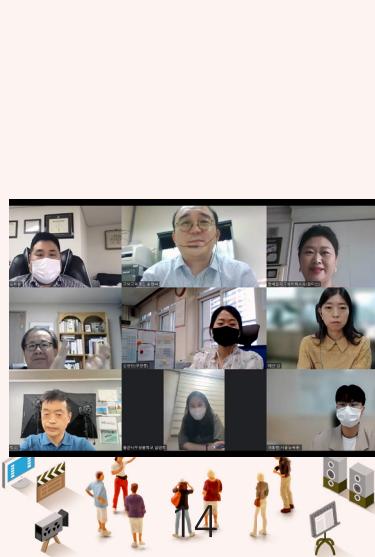
책으로, 참사람으로
뽀르뚜가 아저씨, 감사해요!
글 _ 범계중학교 강서은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는
어떤 책?**
글 _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10

참사람 인터뷰
**‘주먹’ 대신 ‘주걱’을 쥔 사나이,
도시 빈민의 동반자 <바하밥집>**
김현일 대표를 만나다



교보교육재단 소식

인성교육 ‘영상콘텐츠 지원’
연구자 간담회
현장 스케치



19

교보교육재단 소식
**2022 교보교육재단
연중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보여줘! 너의 꿈.끼.끈.꾼’
② ‘끼편’ 수상작품 소개**



16

교보교육재단 소식
**3년 만에 개최되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교보체육꿈나무장학생
선발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며 책 읽기



시인 김수영, 하면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다. “시작(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 글은 산문 「시여, 침을 뱉어라」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

김수영의 이 말은 분명 작가에게 해당하는 조언이다. 나는 현책방에서 일하며 한편으론 책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에 이 조언을 들 마음 깊이 새긴다. 책은 남보다 지식이 많거나 뛰어난 정신을 가진 위인만 쓰는 게 아니다. 온몸으로 글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가다.

언젠가 한 청소년 강연 행사에서 질문을 받았다. 작가님은 책을

왜 쓰냐는 거였다. 나는 순간 너무도 근본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대상이 성인이라면 대개 책을 ‘어떻게’ 쓰냐며 방법을 묻는다. ‘왜’라는 질문은 거의 받아 본 기억이 없다.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른 대답이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씁니다”였다. 돌이켜 보니 나름 괜찮은 대답이었다. 글을 쓰는 일과 책을 쓰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글은 독자가 없어도 쓸 수 있다. 일기처럼 말이다. 하지만 책은 읽히기 위해 존재 한다.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은 책이 아니다. 그냥 책처럼 생긴 물건일 뿐이다.

책 쓰기와 책 읽기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읽기와 쓰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잘 읽고 많이 읽는 사람이 쓰기도 잘

쓴다. 반대로 많이 써 본 사람이 읽기도 잘한다. 작가는 독자가 있으니까 쓴다. 같은 의미로 독자는 작가가 책을 쓰니까 읽는다. 작가는 책을 어떻게 쓰는가? 온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쓴다. 몸으로 쓴 책이라면 읽을 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책을 쓰는 이유와 방법이 여러 가지이듯 읽기 역시 그러하다. 글자가 적힌 종이뭉치에 불과한 이 단순한 물건은 어째서 이렇게 위대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 대체 책이 무엇이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서 장려 캠페인까지 하는 걸까?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만약 먹기만 하면 100% 건강해지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약이나 음식이 있다고 해보자. 귀찮다거나 시간이 없어서, 혹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먹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책은 바로 그런 존재다. 책은 사람의 정신에 혁명을 일으키며 올바른 길이 어느 쪽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독재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광장에 책을 모아 불태웠다. 민중을 바보로 만 들어야 지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도록 돋는 책의 존재는 그 어떤 무기보다 위험한 것이다.

책이 인간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이렇듯 역사를 통해 사실로 검증됐다. 이제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보다 이 좋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 할 시간이다.

조금 김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 여기서 없다는 건, 무(無)가 아니라 공(空)의 의미다. 책을 읽는 방법이 너무 많기에 이중 가장 좋은 방법 몇 가지를 추려 말하는 건 공허한 가르침이다. 책은 나무와 풀, 계곡, 그리고 여러 동물과 곤충이 어울려 사는 산과 같다. 이 산의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실제 산에는 산림 보호를 위해 일정한 탐방로를 설치해 놓고 그 길로만 다니도록 하지만, 책의 산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다 좋다. 심지어 산속에서 한동안 길을 잃어도 괜찮다. 책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위대한 발견에 다다른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서 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방법이 아닌 태도의 문제다. 앞서 나는 책을 쓸 때 김수영 시인의 문장처럼 온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쓴다고 했다. 어떻게 쓴 시가 좋은 시인가. 머리로 쓴 시가 훌륭한가 아니면 심장으로 쓴 시가 진정한 시인가. 이런 논쟁에서 김수영 시인은 머리나 심장이 아닌 온몸으로 밀고 나가며 쓰는 시가 진짜 시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시 쓰는 이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은 책이 아닌 종이 위 글자만 읽는 거나 마찬가지다. 책을 작가가 독자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라고 생각해보라. 누구도 연애편지를 읽고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책에서 글자 해석이나 지식습득 이상의 멋진 의미를 만들어 낼 무한한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움직일 것을 권한다. 요즘엔 책도 다른 물건처럼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다.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책을 배송받는 서비스도 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인데 왜 굳이 서점에 나가 책을 살피고 무거운 책을 들고 돌아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책이란 단순히 사는 물건이 아닌 만남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랑은 마음이 아닌 온몸으로 밀고 나가며 하는 것이기에 아름답다. 서점에 들어가 책에 둘러싸이면 비로소 책은 사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라는 말을 실감한다. 머리나 심장이 아니라 온몸으로 책을 만나면 비로소 책이 나에게 말을 거는 멋진 경험을 얻는다. 이 경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책은 눈으로 읽고 머리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만나야 한다.

에리히 프롬의 책 〈자기를 찾는 인간〉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사람은 행동하고 이해함으로써 세계와 생산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인간은 사랑과 이성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동은 몸의 움직임, 즉 사랑이며 이해한다는 건 세계를 이성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다.

사랑하면 대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몸으로 읽는 책은 드넓은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즐거움이다. 책을 읽고 싶다면, 그냥 책이 아니라 진짜 책을 읽고 세상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몸을 움직여 서점으로 가자. 서점은 세계를 만나는 무대다. 여기서 책과 함께 몸을 부딪치며 자유롭게 한바탕 놀아보는 거다.  교보교육재단

※ 위 칼럼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으로 재단의 사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 성근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대표/에세이스트

어릴 때부터 헌책방 주인장이 되고 싶었다. 책으로 둘러싸인 가게에서 마음껏 책과 함께 생활하는 게 좋다. 책은 오감으로 즐길 때 더 재밌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2021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놀라운 탁구실력을 자랑하던 장애인 아저씨의 비밀

글 _ 참사람 독자 **권우혁**



‘착하고 바르게 커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착하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너무 착하면 당하기만 한다는데 과연 착하게만 산다는 게 옳은 일일까? 나는 오랜 시간 이런 물음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무릇 봉사활동이란 선의의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나는 필수교양수업을 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맡은 일은 장애인 회원들과 탁구를 치고, 떨어진 공을 주워주는 것이었다. 탁구 관련 봉사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장애인을 돌보거나 청소보다는 스포츠 활동이 내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다.

어느 날이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고 있지만, 자신감이 가득해 보이는 아저씨 회원 한 분이 내 맞은편에 섰다. 나는 어릴 적부터 탁구를 배웠기에 ‘몸도 불편한 분인데 내가 쉽게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탁구 채를 잡았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나의 일방적인 패배였다. 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계속 도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렇게 봉사활동 시간이 끝나고 아저씨의 실력에 감탄하며 탁구장을 정리하는데,

아저씨가 나를 도와 탁구장을 정리하시는 게 아닌가? 다리가 불편한 분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진 나는 괜찮다고 사양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저도 여기 자원봉사자예요’였다.

그렇게 끝까지 테이블을 정리하고 복지센터를 나서는 아저씨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몸이 불편한데도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어쩌면 내가 원하던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저씨와 친해지기로 결심했다.

매주 아저씨를 볼 때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그에 대해 알아갔다. 놀라운 탁구실력에는 그럴 만한 비밀이 있었다.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의 입상자 출신이었던 것이다. 나는 굳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몸이 멀쩡한 사람들보다 탁구를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장애인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애인인 내가 앞장서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요.”



나는 아저씨의 대답이 너무 놀라웠다. 나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저씨의 탁구실력을 보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아저씨와 소통을 나누며 착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하게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아저씨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오늘 날까지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아저씨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다고 장애인을 무시했었던 내가 아저씨를 보며 달라진 것처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열린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뽀르뚜가 아저씨, 감사해요!

글 _ 범계중학교 강서은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라는 책을 읽고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게 된 강서은이라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라는 제목을 보고 '라임
오렌지나무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책의 뒷표지에 '너무도 일찍 슬픔을 발견한 다섯 살
꼬마 제제의 아름답고도 가슴 저미는 이야기'라는 소개를
읽고 내용이 궁금해져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책을 읽으면서 너무도 착하고 똑똑하고, 순수한 제제에게
어른들이 '악마'라고 말하며 때리는 모습이 참 가슴 아팠는데
그런 제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준 뽀르뚜가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제가 때로는 도를
넘어서는 나쁜 장난을 할 때도 있지만, "저 애의 피 속에는
악마의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 "문제는 네 피 속에 악마가
들어 있다는 거지.", "이 망나니 같은 놈아!"와 같은 험한 말을
들을 만큼 악한 장난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제는 마음속으로 노래도 할 줄 알고, 라임오렌지나무와
이야기할 줄도 알고, 동생과 놀아주고, 아빠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도 선물할 줄 알고, 선생님께 꽃을 선물할
줄도 알고, 노래도 잘 부르는 멋진 아이인데... 제제가
"고도이아 누나,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런 제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제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제를 사랑해준 아저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른이라면 제제같은 말썽꾸러기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을 텐데 뽀르뚜가 아저씨는 '박쥐 사건'으로
제제와 원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제와 이야기하고, 제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의 눈높이에서 같이 생각해주셨어요.

책에서 제제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아저씨를 향한
제제의 사랑이 느껴져서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기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책에서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저도 제제처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버리실 수가
있나요? 어쩜 그렇게 아저씨를 떠나보낼 수 있는지
정말 작가님과 기차가 야속하고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제에게 아저씨의 죽음은 중요한 친구를 잃은
것이기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제는 점점
야위고 기운이 없어지는 등 무척 힘들어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마음이 아팠어요. 제제는 이 일을
통해 '아픔'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책에서 '이제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매를 많이 맞아서 생긴 아픔이 아니었다.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고작 다섯 살에 아픔이
무엇인지 깨닫다니, 제제가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제제였다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른 후 마흔이 훌쩍 넘은 제제는 아저씨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뽀르뚜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제제의 편지 속 문장을 통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제제의 슬픔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슬펐어요. 이 책을 읽고 난 후 다양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일찍 아픔을 알게 된 불쌍한 제제, 나이를 초월한 뽀르두가 아저씨와 제제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 등 종합적으로 이 책은 저에게 다양하고 따뜻한 감동, 그리고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은 후 저는 저의 다섯 살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의 기억은 가족과 함께한 즐겁고 행복한 기억뿐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아픔'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제도 저처럼 행복한 기억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제제에게 아저씨와의 행복한 추억만이 남았기를 바랄게요. 제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는 어떤 책?

상상력 풍부한 주인공의 혼난한 성장기를
감동과 재미를 가득 담아 들려줍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린 시절을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합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요. 오히려 어린이의 슬픔은 어른의 슬픔보다도 더 한없이 깊고 힘겨운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민한 감성을 가진 다섯 살 꼬마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소문난 말썽꾸러기일 뿐이지요. 제제는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아버지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가족들의 마음 역시 더욱 강퍅해졌지요. 마음 둘 곳 없는 제제는 집 앞 마당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링기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그를 친구 삼아 슬픔과 외로움을 견뎌 갑니다.

이 소설은 작가인巴斯콘셀루스의 유년 시절을 반영한 자전적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린 존재가 자라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제제는 불모의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들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이별을 겪기도 하면서, 혼란과 상처들을 통해 가며 성장해 나갑니다. 제제가 그랬듯 작가 역시 가난과 불행 속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 경험들은 작가로서의 그를 만드는 데에 귀한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너무 크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제제가 그랬듯 사랑할 만한 존재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서로 의지해 가며 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 가다 보면 오늘의 시간들은 어느 미래의 날에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제제의 앞날을,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의 미래를 따뜻하게 오래오래 응원합니다.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 / 소설가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여전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가끔 쓰기도 하며,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는 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읽는 삶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또 생의 한 페이지를 책과 함께 열어갑니다.



체감 기온 영하 20도의 한파가 절정이던 어느 날, 남자는 여러 개의 생수통에 따듯한 물을 담아 신문지로 칭칭 동여맸다. 거리에서 잠드는 노숙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며 부디 얼어 죽지 말라고, 생수통의 온기로 체온을 지키고 내일 아침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비장한 약속을 건넸다.

남자는 하수구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 노숙인을 발견했다. 생수통을 들고 가까이 다가선 그는, 텃줄도 채 떼지 못한 아기가 그녀의 품 안에서 축 늘어져 있는 걸 보았다.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노숙인은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남자는 황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다.

어떻게 세상이 이러한가. 엄마의 젖 한 번 물어보지 못한 아기가 이렇게 거리에서 죽어도 되는 것인가. 신실한 교인이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설을 벌기도 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꼴까지 보여주시는 것이냐고, 도무지 버틸 재간이 없다고.

거리에서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남자는 매일같이 이러한 고뇌와 번민을 겪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사람은 남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래도 그는 노숙인들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남자는 도시빈민을 위한 거리의 급식소 〈바하밥집〉 김현일 대표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를 만나 참사람의 가치를 들어보았다.

‘주먹’ 대신 ‘주걱’을 친 사나이, 도시 빈민의 동반자 〈바하밥집〉 김현일 대표를 만난다

변화의 시작, 가족

그는 과거의 자신을 '꿈도 희망도 없던 구제불능의 건달'로 회고 한다.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인생의 무수한 시행착오는 그를 조직의 세계로 이끌었다. 1994년, 지명수배가 떨어지며 숨을 곳을 찾아 몸을 피한 곳이 바로 금천구 시흥동의 신문보급소였다. 그 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백 키로가 넘는 거구에, 온 몸에 문신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제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순수한 사람으로, 마냥 긍휼하게만 봤다고요."

막 태어난 아이를 받아 안던 그 순간의 희열을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작고 어린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이 아이를, 가족을 위해 살리라. 하지 만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수배자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를 사생아로 만

들고 싶지 않았던 김현일 대표는 형사를 찾아가 자수했고, 우여곡절 끝에 기소 유예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쪽잠을 자며, 오직 가족만을 생각했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렵사리 사업체를 차렸는데 IMF를 만났어요. 아내는 둘째를 임신해서 만삭의 몸이었는데, 빚에 뛰여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가족들을 처갓집에 맡기고 저는 반년 정도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 끼니를 해결했고요."

김현일 대표는 지금도 노숙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시절 느꼈던 감정들과 조우한다. 배식줄에 서서 밥을 기다릴 때의 처량함, 비참함, 자괴감, 죄의식, 서러움 등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을 통해 다시 투영되었다.

변화의 방향, 바하밥집

거리를 전전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었다. 퀵서비스부터 치킨배달 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재기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 앞집에 살던 김형국 나들목 교회 목사를 만나게 된 거죠. 연이은 사업실패로 실패감과 무력감에 젖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며 제 안의 정의감, 열정, 책임감과 같은 좋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는 성북천이 있었다. 어느 겨울 날, 그 곳을 거닐던 중 한 노숙인 가족을 마주쳤다. 60대 남자와 30대의 정신질환을 가진 여자, 그리고 행색이 말이 아닌 유치원생 또래의 두 아이. 그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다. 김현일 대표는 김형국 목사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예배니 은혜니 백날 떠들어봤자 교회 코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김형국 목사의 질문은 김현일 대표를 녹다운 시켰다. “교회가 누구냐?” ‘어디냐’가 아닌, ‘누구냐’는 게 무슨 말일까. “나들목 교회도 교회지만 너도 교회다. 하나님이 네게 보여주시는 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라.”



이듬 해 설, 김현일 대표는 주머니를 털어 컵라면 다섯 개와 빵, 우유, 뜨거운 물을 들고 안암동의 다리 밑을 찾았다. 바하밥집의 시작이었다.

밥은 공공재다

컵라면 다섯 개로 시작했던 바하밥집이 지금

과 같은 규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 날 30명이 오더니, 다음 날은 50명, 그 다음 날은 100명이 몰려왔다. 김현일 대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재정도 사람도 턱없이 모자랐다. 정기후원자를 찾고 봉사자를 모집했다. 몸으로 부딪히며 조금씩 체계를 잡아갔다. 길바닥에서 천막을 치고 급식소를 만들다 주민들의 민원에 접기를 수 없이 반복, 지금은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담벼락에 정착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게릴라 배식을 시작했다. 급식소를 통해 하루에 한끼 겨우 먹는 그들을 도무지 외면할 수 없어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싸들고 직접 찾아다녔다.





“저는 ‘식량공공재’라는 말을 해요. ‘밥’이야말로 누구한테든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인간으로서의 존엄 따위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지론이다. 밥 짖는 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일반인 기준으로 500인 분의 식사를 겨우 200명의 노숙인들이 해치운다고 한다. 산더미같이 배식을 받고,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먹는다, 일종의 생존본능이다, 언제 다시 음식과 만날지 모르니 먹을 수 있을 때 채워두는 식이다.

“식사를 제공하며 조금씩 그들의 삶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째서 도시 빈민이 되었을까? 다시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활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노숙자’가 아닌 ‘손님’

김현일 대표는 바하밥집을 찾는 이들을 ‘노숙자’가 아닌 ‘손님’이라고 부른다.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그는 식사하러 오는 이들을 향해 퍽 허물없이 ‘형님’, ‘아우’하며 친근하게 말을 건넨다.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는 똑같은 노숙자겠지만, 이 안에서도 다양한 부류가 존재해요. 알콜이나 약물중독 등으로 자활이 어려운 ‘부랑자’ 형태의 서울역 노숙인들도 있지만,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남대문 지하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 공중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새벽같이 인력시장으로 가세요. 일감을 얻지 못하면 종일 폐지를 모으거나 수 킬로미터를 걸어 급식소를 찾죠.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한심해 보이겠지만, 이 분들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다. 그는 노숙인들에게는 내재적 동기가 없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어떤 일에 대한 보상과 체벌이 작용하는 외재적 동기 대신,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자발성을 발휘하는 내재적 동기가 필요했다. 그는 인문학 수업을 열고, 야구단을 꾸렸다.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사진촬영을 가르치고, 가죽 공방을 열었다. 그들에서 사는 재미, 성장하는 재미를 일깨우고 싶었다.

“쉽지 않아요. 잘 따라오시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는 거죠. 다시 술에 의존하고,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요. 평생을 살아오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리는 만무하죠. 조금 더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강의 상류로 떠나다

노숙 생활을 ‘강’으로 비유했을 때, 가장 하류에는 부랑자라 불리는 종종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있다. 김현일 대표는 상류를 향해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최상류지점에서, 그는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를 마주했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이 현재를 위한 사업이라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예방사업입니다. 이는 곧 청년문제와 직결되죠. 좋은 공동체와 가족이 없는 청년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는 시애틀로 떠났다. 페어스타트라는 기관을 만나 청년 자활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설립한 것이 바로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다. 포유류인 고래는 무리 내 병 들거나 어린 개체들이 수월하게 호흡할 수 있게끔 수면 위로 밀어 올려주며 돋는 특성이 있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그런 고래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주고 싶었다.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기성 노숙인들의 자활률이 10% 내외라면, 청년들은 80% 가깝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센터로 통학하는 친구들만 200명이 넘는다.

“미국 청년들은 성인이 되면 즉시 독립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숙인 청년들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30대부터 50대까지도 가족들이 품고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죠. 미국 같으면 길거리에서 나와야 할 노숙인들이 우리나라의 가족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립되어있고, 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가족의 보호가 끝나는 날 결국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하는데, 웬 걸요, 통계의 5배는 될 겁니다.”

그는 노숙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학대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미혼모 등 다른 분야에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이 모든 문제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결국 노숙이라는 강의 하류로 귀결된다는 논리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김현일 대표는 요즘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건강한 단체들은 설립자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는데, 자신의 영향력이 법인과 센터 곳곳에 미치는 현실이 다소 불안하단다.

열정과 재주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이관하고, 그는 노숙인을 만나는 급식소 현장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굽은 소나무에 비유했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곧고 잘생긴 소나무는 목재가 되지만, 굽고 못생긴 소나무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니 오래오래 선산을 지킨다는 이 말처럼, 못나고 망가진 제 자신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늘 언제나처럼 빙자와 아픈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작정입니다.”

굽은 소나무였던 그가 내린 뿌리들은 점점 저변을 넓혀가며, 새로운 새싹과 가지를 키워냈다. 센터에서 교육받은 청년들, 배식 받던 노숙인들이 이제는 다시 봉사자로, 활동가로 변모하여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타인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나눔하고 있다. 그가 지키는 이 선산이 부디 우리 곁에 오래 남아주기를, 그리하여 그의 염원처럼 구성원 모두가 더 이상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인성교육 ‘영상콘텐츠 지원’ 연구자 간담회

현장 스케치

재단은 2016년부터 실천적 현장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담장을 넘어선 사회적 인성교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인성교육 현장연구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맞는 온라인 인성교육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우수한 인성교육 연구(프로그램)자료의 ‘영상 콘텐츠’ 제작
을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인성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2 인성
교육 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지원 공모에서 선정된 5과제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의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인성교육 영상콘텐츠들이 만들어지나요?

2022년에는 총 5개의 인성교육 영상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인성교육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마음아람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시조창을 활용한 인성교육,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자신의 내면이나 되고 싶은 자아를 찾아가는 '가면이 벗겨진 세상',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출동 배려맨'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간담회 현장 스케치

지난 6월 29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지원과제 연구자들 및 심사를 맡아준 정창우 서울대학교 교수 가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인사와 교보교육재단 소개로 포문을 열었고, 영상콘텐츠 지원사업의 선정경과 보고에 이어 정창우 교수의 선정관련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정창우 교수는 처음으로 시되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인만큼 지원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책임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원과제의 영상콘텐츠 결과물의 질이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바로미터가 되고,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구자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과 관련한 지원금 지급, 보고서 및 콘텐츠 제작기간, 보고서 제출방법, 저작권 및 초상권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과제의 영상콘텐츠는 내년 2월말까지 제작될 예정입니다. 영상콘텐츠가 제작이 완료되면 재단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재단의 유튜브(<https://url.kr/6gv1fy>)에 게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보교육재단의 인성 교육 영상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분 영상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연구책임자)

- 1 인성러버스 프로그램 (문일호 교사)
- 2 시조창을 활용한 인성교육(강미선 연구원)
- 3 회복탄력성 Go Go!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
(김혜진 교수)
- 4 가면이 벗겨진 세상(유승민 교감)
- 5 어린이 성품교육 – 출동! 배려맨(김희종 대표)



3년 만에 개최되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교보체육꿈나무장학생 선발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스포츠 인재 육성의
첫 발을 내딛다



교보교육재단은 운동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스포츠 꿈나무를 키우고자 2019년 ‘교보 체육꿈나무육성 장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속에는 ‘어릴 때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야 인격과 지식도 잘 자란다’는 신용호 창립자의 육성철학이 담겨 있어요.



스포츠 꿈나무들의 든든한 버팀목

◆◆◆ 체육꿈나무육성 장학금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출신 선수 가운데 잠재력을 가진 유망주를 발굴해 미래의 참리더로 성장하도록 돋고 있습니다. 7개 종목별 체육 꿈나무를 2명씩 선발해 중·고교 6년 간 꿈나무 장학금 200만원을 해마다 지원합니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선수에게는 별도의 특별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포츠심리상담 및 재활운동 서비스와 더불어 독서 프로그램, 멘토링 캠프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첫 선발된 1기 교보체육꿈나무장학생



▲ 하은주(웨이크업바디 운동센터 대표)와 함께하는 장학생 스포츠 심리상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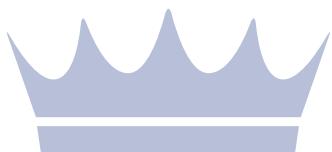


▲ 꿈나무북클럽 사진

메달리스트의 산실

◆◆◆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체육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기초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1985년부터 38년째 열리고 있어요.

황대현, 박태환, 여서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키워낸 메달리스트의 산실로도 알려져 있지요.



올해 꿈나무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다가 3년 만에 열리게 됐어요.

7월 10일 육상을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7개 종목에 선수 4,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해요. 교보교육재단은 2기 체육꿈나무장학생으로 함께 할 스포츠 유망주들을 만나기 위해 육상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꿈나무 인터뷰



육상 최우수 선수
(100m 및 멀리뛰기 우승)

권가은 (인천 논곡초)

“1등을 목표로 준비했는데 이뤄서 기뻐요. 출발선에 서면 빨리 결승선을 통과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죽어라 뛰어요. 요즘 실력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실력을 쌓아 중등 멀리뛰기 1위 오소희 언니처럼 좋은 기록을 내고 싶어요. 올림픽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게 목표에요.”



육상 최우수 선수
(멀리뛰기, 4x100mR 우승)

박성현 (충북 남한강초)

“지난 5월 소년체전에 이어 꿈나무체육 대회에서도 멀리뛰기 1위를 해서 기분 좋아요. 앞으로 자세를 더 다듬으면서 운동에 집중하고 싶어요. 높이뛰기 국가대표이자 한국신기록을 기록한 우상혁 선수처럼 성장해 올림픽 메달을 거는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게 목표에요.”

스포츠 꿈나무들의 든든한 버팀목

◇◇◇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어요. 트랙별로 달리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저기 힘찬 응원의 목소리가 드높았습니다. 달리기 경기장에선 근소한 차이로 1등이 결승선을 통과하자 환호성이 울려 퍼지기도 했답니다. 경기 중에는 기량을 다투는 경쟁상대이지만 무대 뒤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올해 꿈나무체육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내 최초로 ESG 관점의 친환경 대회로 열렸어요. 골판지 안내판과 재활용 장바구니 기념품을 만들고 그린올림픽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교보교육재단은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을 접목한 그린가족소통캠프를 열어, 꿈나무 선수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앞으로도 교보교육재단은 스포츠 유망주들이 미래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022 교보교육재단 연중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보여줘! 너의 꿈.끼.끈.꾼’ ②‘끼편’ 수상작품 소개

교보교육재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신만의 열정과끼를 펼칠 수 있는 공모전을 연중 릴레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 간 진행되었던 제2회 ‘끼’편은 친구에게 전하

는 응원과 공감의 내용을 담은 창작노래를 주제로 작품을 접수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대한 응원을 개성 넘치는끼로 담아낸 수상작품을 참사람 36.5°C 8월호에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Don't give up**

이주빈, 김혜랑, 이예린, 김경민

[영상감상하기](#)



네
꿈을
위해



수상자 한마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매일 아침 알람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알람을 들으며 어떠한 일을 끝냅니다.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알람을 영상의 처음과 끝에 두어서 청소년들의 꿈의 시작과 끝에 이뤄낸을 상징하게 하였습니다.

우수상 **힐끔 너무 많지만**

심승현, 전재린, 정시은



수상자 한마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삶의 꿈에 대해 그들만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학생 때는 갑작스럽게 압박되어지는 진로 고민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한없이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이 나아갈 길을 헤매더라도 그 과정조차 응원한다는, 그 또한 성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노래에 담고 싶었습니다.

You are a shinning star

최화랑, 고다율, 김은찬, 이서정



수상자 한마디

7살 때부터 현재까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하고 노래는 음이 안 맞아서,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나는 말을 가끔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사로 적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종이비행기를 날려서 응원하는 말을 전달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 응원의 말을 노래로 만들어 이번에 신청하였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녕, 아이야

김승현



수상자 한마디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대로, 앞으로 다가을 내일들을 위해 살자. 그래 꿈을 꿰보자 꿈을 꿰보자, 더 많은 것을 이뤄내 가보자. 가끔 하루가 아쉬워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면 된거야. 안녕 좋은 날이야, 너를 만나 참 행복한 날이야.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 고마워, 같이 노랠 부르자.” 노래 가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 맞이하는 일상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김나희



수상자 한마디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는 나아지지 않기에 지금의 일상이 무료하고 지루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바라던 세상과 지금까지 원해왔던 꿈을 마주할 수 있을 용기를 주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